

‘대전고등학교 100년’ 역사가 되다

4500여 동문·재학생 역사의 현장 지켜 보



대망의 모교
개교 100주년 기
념행사가 2017
년 5월 20일 오

전 11시 모교 한모동산에서 100주년
기념조형물 ‘Point-미래로’ 제막식을
시작으로 일제히 열렸다. 조형물 제막
식과 축하(祝畵) 기증식, 기념식수 시
삽식에는 원로선배와 내빈, 학교장, 학
생대표 등이 참여했다. 100주년 기념
사료 사진전은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일찍부터 모교에 모인 동문들을 위해
먼저 개방했다.(관련 기사 2~3면)

◇100주년 기념조형물 제막식

작품명 : Point-미래로

너비 250cm×430cm, 높이
516cm의 스테인레스 스틸+특수도
장으로 제작된 임동락(51회·부산동아
대 교수, 부산국제비엔날레 이사장) 동
문의 작품이다. 100년의 역사를 바탕
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는
새싹(대전고생)들의 꿈과 희망을 그렸
다고 작가는 말했다. 임 동문은 한국과
프랑스 파리를 오가며 작품활동을 하
는 세계적인 조각가다.



◇100주년 기념 축하(祝畵) 기증식

작품명 : 백년금화(百年金花)

102cm×162cm 화선지에 먹 채색.
축화 ‘백년금화(百年金花)’는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인 민경갑(32회·한국화가)
동문이 모교의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
의 의미를 화폭에 담은 것이다. 이 그
림은 오묘한 색의 조화가 돋보이는 신
비스러움으로 그림을 감상한 동문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2면에 계속



충무체육관에 운집한 동문들(위)과 조형물 제막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는 내빈들

‘2017 자랑스러운 대능인상’ 윤호일(40회) 동문



‘2017 자랑스러운 대능인’으로 윤
호일(40회·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
사·사진) 동문이 선정됐다. 윤 동문은
지난 2008년부터 모교 선생님들의 사
기 진작을 위해 ‘올해의 선생님’ 상을

제정, 지금까지 총 9000만 원을 지원
했다. 또, 1990년부터 27년 간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 59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윤 동문의 깊은 뜻에 감동한
모교에서는 지난 2013년 2월 ‘윤호일
스터디홀’ 명명식을 갖고 후배들에게
귀감으로 삼도록 했다.

윤 동문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미국
Baker & McKenzie로펌 파트너변호
사, 법무법인 우방 대표변호사를 역임
하고, 현재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
인 화우를 국내 굴지의 로펌으로 성장
발전시켜 모교와 동문의 명예를 크게
높였다.

이인구(31회·계룡건설 창업자) 제17대 총동창회장 별세



제17대 총동
창회장을 지낸
이인구 계룡건
설 명예회장이
5월 15일 새벽
지병으로 별세

했다. 향년 87세.

계룡건설 창업자인 이 전 총동창회
장은 13대,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난 1992년 계룡장학재단을 설립,
26년 간 1만4000여 명의 학생에게 장
학금을 지급했고, 광개토대왕비 복제

비 건립사업과 삼학사비 중건사업, 일
본 백제문화유적 탐사사업, 백야 김좌
진 장군 추모사업, 독도 우리땅 밝기운
동 등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또, 사재를 출연해 조
성한 ‘유림공원’을 대전시에 기부했고,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 창단, 나라사
랑 보금자리사업 후원, 희망나눔캠페
인 후원 등 공익활동에도 앞장섰다.

이 전 총동창회장은 병상에서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유족으로 이승
찬(74회) 계룡건설 사장 등 1남 8녀가
있다. 100주년기념사업회는 모교와 동
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려 이 전
총동창회장에게 헌정패를 추서했다.

▶1면에서 계속

◇기념식수

신현일 100주년기념사업회(총동창회장)가 기증한 수령 30년짜리 조선소 나무로 한모동산을 가로지르는 통로 한편 끝에 식재됐다. 낙우송과 함께 한모동산의 상징나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0주년 기념 사료 사진전

모교 대강당에 110cm×110cm 크기 파레트 250여개를 이어붙여 설치한 전시대에 사진 230매를 전시했다. 개교 초기 사진부터 교사(敎舍)의 변천과정과 시대별 학창시절 모습, 야구부 역사, 동창회 활동이 담긴 내용으로 5월 20~22일 3일 간 전시돼 동문, 재학생, 시민 등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가 퍼레이드

12시 40분 해군 군악대와 의장대

를 선두로 동문·재학생 1500여 명이 교문→대흥동로터리→충무체육관까지 약 1.5km를 도보로 행진했다. 100주년 축하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재학생·동문들에게 시민들이 박수를 보내며 격려했다. 이날 퍼레이드에는 조완규(26회), 나웅배(32회), 심대평(38회), 김각영(41회) 동문 등 원로들도 다수 참가했다.

◇충무체육관 기념식

4천5백여 동문이 체육관을 꽉 메운 가운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전행사, 공식행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는 박찬규(75회·대전MBC 리포터) 동문이, 2부는 조석준(51회·전 기상청장) 동문이, 3부는 조영구 전문MC가 진행을 맡아 흥을 돋웠다.

◇주요 내빈



대회사_신현일 회장



기념사_이홍구 교장

이날 기념식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관계로 안전사고를 우려해 촘촘하게 짜여진 순서대로 일사불란하게 진행됐다. 신현일 회장의 대회사, 이홍구 교장의 기념사 외에 축사는 권선택(53회) 대전광역시장,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

헌정패·감사패 등 총 186명에게 수여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공헌한 동문에게 모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각종 상패가 수여됐다.

총동창회장 및 재경동창회장을 역임한 동문에게는 헌정패를, 1억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특별감사패를, 1천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모교를 빛낸 동문에는 전·현직 장·차관 이상 공직자, 대장급 군장성, 대학 총장을 지낸 동문이 선정됐다. 공로패는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과 100주년기념사업에 기여한 동문이 선정됐다. 이밖에 해외 동문 환영패와 자매학교인 일본 구마모토 고등학교 동창회 가와카미 가즈마사 부회장에게 방문기념패를 증정했다.

◇헌정패

▲이재기(2회·제1대 총동창회장) ▲박남석(3회·제3대 총동창회장) ▲권대재(5회·제2대 총동창회장) ▲김진국(6회·제1, 2대 재경동창회장) ▲신행우(8회·제3대 재경동창회장) ▲임주혁(8회·제4대 총동창회장) ▲이채욱(9회·제4대 재경동창회장) ▲송도웅(11회·제5, 6대 재경동창회장) ▲신현술(11회·제5, 6대 총동창회장) ▲박원석(20회·제7, 8대 총동창회장) ▲이종성(21회·제11대 총동창회장) ▲지현택(21회·제7대 재경동창회장) ▲김규태(23회·제9, 10대 총동창회장) ▲이면상(25회·제14대 총동창회장) ▲박영규(28회·제15, 16대 총동창회장) ▲강석두(29회·제13, 14대 재경동창회장) ▲천영성(29회·제12, 13대 총동창회장) ▲박준병(31회·제15, 16대 재경동창회장) ▲이인규(31회·제17대 총동창회장) ▲나웅배(32회·제17대 재경동창회장) ▲박종윤(33회·제18대 총동창회장) ▲송자(34회·제18, 19대 재경동창회장)



1억 원 이상 기부한 동문들. 사진 왼쪽부터 조동인(56회) 해커스교육그룹 회장, 오형근(44회) 운하골프리조트 대표, 신현일 회장, 이의범(61회) SG그룹 회장, 이승찬(74회) 계룡건설 대표, 송재준(44회) 한모기술 대표이사는 개인사정으로 불참했다.

20대 기수에서 26회 조완규(전 서울대 총장, 전 교육부 장관) 동문과 28회 박영규(전 총동창회장) 명예교문이 눈에 띄었고, 30대 기수에서는 32회 나

웅배 전 부총리, 35회 이동호 전 내부부 장관, 38회 심대평 전 충청남도지사 등이 눈에 띄었다.(3면에 주요 참석자 명단)



축사_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축사_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갑 2명으로 제한했다.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와 이준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외빈들은 축사에서 대전고가 인재 배출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이동호(35회·제19대 총동창회장) ▲이규성(37회·제20대 총동창회장) ▲김중석(3회·제3대 총동창회장) ▲권대재(5회·제2대 총동창회장) ▲김진국(6회·제1, 2대 재경동창회장) ▲신행우(8회·제3대 재경동창회장) ▲임주혁(8회·제4대 총동창회장) ▲이채욱(9회·제4대 재경동창회장) ▲송도웅(11회·제5, 6대 재경동창회장) ▲신현술(11회·제5, 6대 총동창회장) ▲박원석(20회·제7, 8대 총동창회장) ▲이종성(21회·제11대 총동창회장) ▲지현택(21회·제7대 재경동창회장) ▲김규태(23회·제9, 10대 총동창회장) ▲이면상(25회·제14대 총동창회장) ▲박영규(28회·제15, 16대 총동창회장) ▲강석두(29회·제13, 14대 재경동창회장) ▲천영성(29회·제12, 13대 총동창회장) ▲박준병(31회·제15, 16대 재경동창회장) ▲이인규(31회·제17대 총동창회장) ▲나웅배(32회·제17대 재경동창회장) ▲박종윤(33회·제18대 총동창회장) ▲송자(34회·제18, 19대 재경동창회장)

◇감사패(축하 기증, 조형물 제작)

▲조완규(26회·전 서울대 총장, 전 교육부 장관) ▲김시중(30회·전 과학기술처 장관) ▲신국범(31회·전 대전대 총장) ▲신정철(31회) ▲윤봉섭(31회) ▲정덕기(33회·전 충남대 총장) ▲곽영달(34회·전 국회의원) ▲김창준(34회·전 미연방 하원의원) ▲나웅배(34회·육군대장 예편) ▲심상기(34

회·서울문화사 대표) ▲이진삼(34회·전 육군참모총장, 전 국회의원) ▲홍성기(34회·전 대전시장) ▲여준선(35회·안국약품 명예회장, 전 국회의원) ▲김용각(36회) ▲이근영(36회·전 산업은행총재, 전 금융감독원장) ▲이재환(36회·전 국회의원) ▲이현우(36회·전 청와대경호실장) ▲송천영(37회·전 국회의원) ▲오응준(37회·전 대전대 총장) ▲유희영(37회·화가, 대한민국의 예술인) ▲가재환(38회·전 사법연구위원) ▲이종상(38회·화가, 대한민국의 예술인) ▲임대환(38회·전 특허법원장) ▲최상진(38회·전 국회의원) ▲김범명(40회·전 국회의원) ▲김정남(40회·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원웅(41회·전 국회의원) ▲이양희(41회·전 국회의원) ▲이인호(41회·전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이규홍(42회·전 대법관) ▲강철규(43회·우석대 총장, 전 공정거래위원장) ▲유창중(43회·서울중앙지검장) ▲고한철(44회·전 대법관) ▲이윤호(45회·전 지식

“휠체어 타고 행진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

2017년 5월 20일은 모교 역사에서 매우 귀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아침 일찍부터 모교 교정에 동문들이 삼삼오오 들어설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몰릴 줄은 몰랐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대전권 거주 동문들에게는 사전에 모교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충무체육관으로 곧바로 가도록 유도했기 때문이다. 착각이었다. 동문들은 모교에서 모두 함께하기를 원했다. 시가 퍼레이드에도 직접 참여하고 싶어했다. 그렇게 해서 인원 제한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1500여 명이 행진에 참여했다. 재학생은 깔끔한 유니폼을,



〈주요 참석자〉

◇내빈

조완규(26회·전 교육부 장관) 민경갑(32회·예술원 회장) 나웅배(33회·전 부총리) 이동호(35회·전 내부부 장관) 심대평(38회·전 충남지사) 윤창로(38회·전 국방부 대변인) 박성홍(40회·전 독립기념관 감사) 윤호일(40회·법무법

3·8동지회 선배들은 검은색 모자를 맞춰쓰고 손에 손마다 100주년 기념 깃발을 흔들며 모교 100주년을 자축했다. 길을 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박수로 격려했다.

잊지 못할 광경도 여럿 목격됐다. 몸이 불편해 휠체어에 앉은 자녀와 함께 끝까지 퍼레이드를 완주한 부모를 보고 많은 동문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100주년이 준 뜻밖의 선물이었다. 모교사랑과 선후배 간 동문애를 확인한 5월 20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사의 현장을 함께 지켜본 대가족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감격의 여운이 길고 넓게 남을 것이다.

◇외빈

인 화우 대표변호사) 박건영(42회·제23대 총동창회장) 송인준(42회·전 헌법재판관) 강창희(44회·전 국회의원) 김주필(44회·제23대 재경동창회장) 이윤호(45회·전 지식경제부 장관) 장영철(45회·제24대 재경동창회장) 정상철(50회·전 충남대 총장) 박성효(52회·전 대전광역시장) 이명수(52회 국회의원)

권선택(53회·대전광역시장) 윤여표(53회·충남대 총장) 여형구(56회·전 국법재판관) 강창희(44회·전 국회의원) 김주필(44회·제23대 재경동창회장) 이윤호(45회·전 지식경제부 장관) 장영철(45회·제24대 재경동창회장) 정상철(50회·전 충남대 총장) 박성효(52회·전 대전광역시장) 이명수(52회 국회의원)



불우이웃 100가정에 1억 원 전달

잡음 우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선정·심사 일임

모교 100주년을 더욱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해 대전·충남·세종 지역 불우이웃에 성금을 기탁했다. 성금 기탁은 동문 언론인모임(대언회) 자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100주년 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대상 가정을 대전 50, 충남 40, 세종 10가구로 나누어 선정키로 하고, 일체의 잡음을 피하기 위해 선정과 심사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일임했다.(사진은 신현일 회장이 충무체육관 기념식 자리에서 안기호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게 1억 원을 전달하는 모습)

권선택(53회·대전광역시장) 윤여표(53회·충남대 총장) 여형구(56회·전 국법재판관) 강창희(44회·전 국회의원) 김주필(44회·제23대 재경동창회장) 이윤호(45회·전 지식경제부 장관) 장영철(45회·제24대 재경동창회장) 정상철(50회·전 충남대 총장) 박성효(52회·전 대전광역시장) 이명수(52회 국회의원)

◇외빈 권선택(53회·대전광역시장) 윤여표(53회·충남대 총장) 여형구(56회·전 국법재판관) 강창희(44회·전 국회의원) 김주필(44회·제23대 재경동창회장) 이윤호(45회·전 지식경제부 장관) 장영철(45회·제24대 재경동창회장) 정상철(50회·전 충남대 총장) 박성효(52회·전 대전광역시장) 이명수(52회 국회의원)

국정원 2차장 김준환(60회) 동문 김준환(60회) 동문이 국정원 제2차장에 임명됐다. 김 차장은 행사 34회 출신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아산경찰서장 김항구(56회) 동문 김항구(56회) 동문이 아산경찰서장에 임명됐다. 김 서장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59회·전 국회의원) ▲이운룡(59회·전 국회의원) ▲정길영(59회·감사원 사무총장) ▲유진선(60회·아시안게임 테니스 4관왕) ▲정용기(60회·국회의원) ▲이장우(63회·국회의원) ▲김용태(66회·국회의원) ▲이상범(67회·전 국가대표 농구팀 감독)

◇특별감사패

▲이인규(31회·전 계룡건설 회장) ▲심상기(34회·서울문화사 대표) ▲송재준(44회·한모기술(주) 대표이사) ▲오형근(44회·운하골프리조트 대표) ▲조동인(56회·해커스교육그룹 회장) ▲이의범(61회·SG그룹 대표)

◇감사패(행사 기여)

▲해군 군악의장대대 ▲김나영(모교 교사) ◇감사패(장학금 및 발전기금 기탁) ▲김상만(31회) ▲김소일(38회) ▲서정선(39회) ▲김남홍(40회) ▲박용철(40회) ▲김상기(44회) ▲성필호(44회) ▲최용식(44회) ▲이윤재(45회) ▲김종기(46회) ▲이상량(46회) ▲정현화(47회) ▲목이균(48회)

▲유병학(48회) ▲이종철(48회) ▲재경 48회 동창회(48회) ▲조남웅(48회) ▲권오상(49회) ▲김보근(51회) ▲고길석(52회) ▲이정환(52회) ▲홍종오(52회) ▲정영재(54회) ▲김성남(55회) ▲김응두(55회) ▲송인식(57회) ▲오세현(57회) ▲김경수(58회) ▲권후원(59회) ▲김대현(60회) ▲뉴욕동문회 ▲대교의사회 ▲대능코르스

◇공로패 ▲이신석(48회) ▲임상순(48회) ▲이철재(51회) ▲전병구(51회) ▲조성남(51회) ▲김순식(51회) ▲김형태(52회) ▲홍종오(52회) ▲강덕기(54회) ▲조영환(54회) ▲민창홍(56회) ▲김용덕(56회) ▲이동혁(58회) ▲지동선(63회)

◇환영패 ▲조덕제(35회·재미 동문) ▲이원복(37회·재미 동문) ▲김승묵(39회·재미 동문) ▲임승래(44회·재미 동문)

◇방문기념패 ▲河上和正(구마모토 고교 동창회 부회장)

“다들 어렵다고 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됩니다”



좋은 분을 후임 회장으로 모시는 게 마지막 목표라고 말하는 신현일 회장

신 현 일 개교100주년기념사업회장

준비기간 짧은데 비해 행사 잘 치러 다행
후원금 내달란 얘기 처음엔 입 안 떨어져
예상밖 호응에 놀라 大高 저력 새삼 느껴
좋은 분 후임 회장으로 모시면 역할 끝나

념식수도 좋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잘 가꾸면 멋진 그림이 될 겁니다. 민경갑 선배님께서 ‘백년금화’를 기증해 주신 것도 의미가 큼니다. 100주년 사료 사진전은 모교를 자주 못 오시는 동문들을 위해 예정에 없던 것을 급히 준비한 것인데 반응이 좋았어요. ‘100년사’와 ‘역사관’이 마무리되면 행사 전반을 리뷰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고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납니다. 아쉬움이 있어도 이만하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로가 누적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건강은 좀 어떻습니까?

“5월 20일 행사가 끝난 뒤 한동안 밀린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쉬지를 못했다고 말했다. ‘대전고 100년사’ 출간과 ‘대전고 역사관’ 개관이 그것이다. ‘100년사’는 집필을 거의 마친 상태로 곧 편찬작업을 시작해 8월 말 인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기념사업 초기 계획 단계에서 논의되던 ‘대전고 100주년 기념관’ 건립이 무산돼 아쉬웠는데 ‘역사관’ 설치로 방향을 틀어 착착 준비가 진행 중이다. ‘역사관’은 현 기숙사 1층에 약 45평의 공간을 확보해 한시름 놓았다. 그러나 기숙사 전체가 리모델링 중이어서 이 기간에 전시관 공사를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 12월에나 개관이 가능할 것 같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100주년기념사업회장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다.

—처음부터 역점을 둔 사업이 있었나요?
“원로 고문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규모를 너무 크게 벌이지 말고, 알뜰하게 치르라는 말씀이셨죠. 그래도 기념조형물만큼은 꼭 해야한다고 하셨어요. 하다보니 욕심이 좀 생겨 한모동산 조경수를 교체했습니다. 기

해하며 의지와 책임감이 뛰어난 분이 회장이 돼 모교와 동창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동창회장이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어요.”

—5월 20일 열린 행사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남들만큼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문뿐 아니라 그날 참석하신 외빈들로 부터도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약조건을 딛고 이같은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 사무국 직원들의 고생이 컸어요. 대부분 후배 기수인 실행위원들도 수고 많았고요. 특히 100주년기념사업회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직 기념사업 중 중요한 몇 가지가 남아 있지만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겁니다. 이번엔 절실히 느낀 건데, 일회성 행사는 끝나면 세월과 함께 기억에서 사라지지만 기념 시설물은 잘 관리하고 유지하면 가치가 점점 상승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뭐 좀 하려고 하면 처음엔 부담스러울 만큼 관심들을 쏟다가 막상 해놓으면 남의 일 보듯이 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100주년 기념조형물, 한모동산, 대전고 역사관은 모교나 동창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동창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줘야 보전이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모교의 겉모습은 괜찮습니다. 문제는 동문과 지역사회의 바람대로 명문고로 부활하는 것인데,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보니까 우리 동문들의 저력이 대단합니다. 이 에너지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만 있다면 능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동문님들 자부심에 누가 되지 않는 게 목표죠”

이 홍 구(55회) 모교 교장

예전의 학교 모습 모두 사라져 안타까워
대전고 역사관에 추억거리 많이 담겼으면
우리 학교는 구도심의 자부심 그 자체
동문님들 도움으로 새 희망 찾아가는 중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의 공동주관자로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겸 100주년기념사업회장을 도와 노심초사한 이홍구(55회) 모교 교장을 행사가 끝난 뒤 교장실에서 만났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 큰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저는 그냥 걱정만 했죠.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주축이 된 기념사업회에서 행사 전반을 주관해 치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특히 신현일 회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건강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임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 모교 교감으로 2년 간 근무한 적이 있어서 대체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얹혀 있어 행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 기대 이상의 멋진 행사가 됐습니다. 교장 이전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신현일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문님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쉬운 점은 없나요?

“짧은 준비기간에 이만큼 수준 높은 행사를 치르는 걸 보고 저는 대능인의 저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행사 자체의 완성도도 높았지만 우리 대고의 앞날에 큰 힘을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보면서 선배님들이 얼마나 모교와 후배들을 사랑하는지 똑똑히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보답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확실한 동기 부여가 생겼습니다.”

—올해 학교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대강당 옆에 있던 농구코트를 후정으로 옮겨 새로 개장했구요, 야구장 인

조잔디도 곧 다시 깔게 됩니다. 12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교육청에서 흔쾌히 지원해주셨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숙사 리모델링입니다. 21억 원이 투입되는데 1, 2차로 나눠 올해 안에 모두 마쳐야 합니다. 기존 4인 1실을 2인1실로 모두 바꾸는데, 고등학교로는 아주 드문 호텔급 수준입니다. 동문님들을 비롯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어렵게 이루어지지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나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학교의 옛 모습이 모두 사라져 동문 입장에서 추억거리가 별로 없는데.

“저도 마냥가지지만 그 점이 못내 아쉽습니다. 공립학교 특성상 교육 당국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 보니 마땅히 보존돼야 할 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 안타깝죠. 다행히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전고 100년사’가 8월에 출간될 예정이고,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건립되는 ‘역사관’이 올해 안에 개관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큼니다. 해마다 졸업 정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려는 동문님들의 방문이 이어지는데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이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또 타교에서 저희 학교를 많이 찾아주시는데 역사와 전통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돼 너무 좋습니다. 잘 운영하고 발전시켜 우리 학교의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모교의 비전을 걱정하는 동문들이 많

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 예전의 전통적인 명문고들이 모두 고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 설립 당시만 해도 최고의



동문들과 힘을 합치면 모교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않은 않다고 말하는 이홍구(55회) 교장

입지였던 곳이 구도심으로 전락하고, 특목고가 생기면서 타격을 받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선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학교에 입학이 보장만 되면 자녀를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이 신도심에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1지망에서 60%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근거리 배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선발이 되기 어려운 신도심 학생들은 아예 지망을 꺼린다는 겁니다. 이런 불리한 여건을 딛고 이 만큼 하는 건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님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증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경동창회의 1대1 결연장학금 지급 방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말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색을 하며）학교장 입장에서 재고해주시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전 구도심권은 여러 동문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교육여건이 더 열악합니다. 대전의 중심축이 서구·유성 쪽으로 옮겨가면서 교육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학교는 구도심권 학생, 학부모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충

남을 통틀어 이 만한 시설을 갖춘 학교가 없습니다. 게다가 기라성같은 선배님들이 계신 명문 아남니까. 이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좀더 구체적인 말씀드리자면 1대1 결연장학금이 없으면 기숙사생 지원이 끊겨 명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문님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교육적 견지에서도 우리 학교가 건재해야 합니다. 동문 이전에 교육자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셔서 현재 방식대로 지원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애로가 많으시겠군요.
“제 개인 애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단지 대전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학교가 대전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없으면 구도심을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살려야하고 더 발전시켜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동문님들이 도와주시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저와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주년 축하 백년금화(百年金花)



100주년 기념조형물 Point-미래로



민경갑(32회·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동문이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모교 본관 로비에 걸려 대한민국 대표 동문화가의 예술성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됐다. 민동문은 특유의 화풍으로 한국화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화단의 거목이다.

기증식이 끝난 후 동문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작품 감상과 촬영, 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한동안 줄을 이었다.



임동락(51회·부산 동아대 교수, 부산비엔날레 이사장) 동문의 재능기부로 세워진 100주년 기념조형물은 제막식 직후 기념촬영의 명소로 떠오르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순서를 기다릴 만큼 인기를 끌었다.

특히, 모교 본관 건물이 조형물의 배경이 돼 운치와 의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앞으로 대전고를 상징하는 포토존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능코러스

1. 7. 서울 영산아트홀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공식행사로 첫 스타트를 끊은 대능코러스(단장 성필호·44회)가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그 동안 갖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대능코러스는 44회 선배부터 93회 후배까지 49년을 뛰어넘는 선배배 동문이 음악으로 뭉쳐 돈독한 우의를 과시하는 모임이다. 이날 공연에는 모교 재학생도 참여해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테니스

4. 9. 충남대 테니스코트

대능테니스회(회장 박용섭·50회)가 주관한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장배 테니스대회가 4월 9일 오전 9시 30분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10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해 코트를 뜨겁게 달궜다. 특히, 선배 기수인 박중균(36회), 전연승·이인복·이용만(이상 38회), 류태형(39회) 동문이 노익장을 과시해 후배들의 부러움을 샀다.



골프

4. 16. 아산 아름다운C.C.

대능골프회(회장 이종철·48회), 대골회(회장 황성연·51회), 대동골(회장 류제일·64회)이 공동 주관한 개교 100주년 기념 총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4월 16일(일) 오후 1시 아산시 아름다운C.C.에서 열렸다. 대회 사상 가장 많은 51팀 204명이 참가해 동문 골프대회의 역사를 새로 썼다. 최다 참가 기수는 56기로 7팀 28명이 함께 필드를 누볐다.



바둑

4. 22. 모교 강당

대문 바둑대회가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동안은 한국기원 등 주로 서울 소재 기원에서 열렸다. 그러나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 대회는 달라야 했고 또 달랐다. 이번엔 재경 동문들이 대전에서 치르는 대회에 흔쾌히 참가했다. 쾌청한 날씨 속에 대회가 열린 모교 대강당은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였다. 이 대회는 대능기우회가 주관했다.



산악회

5. 3. 백두산 천지

모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능산악회(회장 김원진·58회)의 산행이 2016년 9월 11일 계룡산을 시작으로 10월 2일 설악산, 2017년 1월 7일 한라산, 4월 9일 지리산, 그리고 지난 5월 3~6일 백두산 산행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9년에 창립해 지금까지 86차례 산행을 했고, 내년 8월 100차 산행을 바라보고 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산행. 문의: 정정목(70회) 총무 010-5270-1314



축구

5. 7. 목원대 등 4곳

대능축구 동호인으로 구성된 대전고FC가 주관하는 제10회 대전광역시 고교동문 축구대회가 5월 7일 오전 7시부터 목원대 구장을 비롯한 4개 구장에서 동시에 열렸다. 14개팀이 출전해 자웅을 겨루는 봄 대회는 전 연령층을 망라, 기량이 가장 뛰어난 선수들이 출전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대회 우승팀은 A그룹 대전상고, B그룹 충남기계공고가 차지했다.



당구

5. 14. 유성구 힐당구클럽

대능당구회(회장 한일권·53회)는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생 동호회지만 100주년 기념대회를 치를 만큼 급성장했다. 이번 대회에도 40명이 참가해 장장 8시간 동안 기량을 겨뤘다. 8월 셋째 주에 차기 평가전을 치르고, 10월 경 내년에 열리는 SBS-기움증권 고교동창3C 선발전을 치를 예정이다.



기숙사 1층에 ‘대전고 역사관’ 들어선다

45평에 각종 사료 전시… 디지털 영상으로 추억 ‘재현’

대전고등학교 역사관이 기숙사 1층(사진 점선 부분) 약 45평에 들어선다. 그 동안 사료실에 보관해오던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고, 새로 발굴한 자료와 기증품을 모아 전시할 예정이다.

전시품 외에도 대전고등학교의 역사를 압축한 연혁과 역사적 인물, 역대 교장, 역대 총동창회장 및 재경동창회장, 모교를 빛낸 인물을 분야 별로 소개하는 코너도 설치한다. 교사(校舍)의 변천, 주요 사건, 주요 인물들은 사진과 명단을 전시한다. 야구, 농구 등 각종 대회 우승기 및 우승컵도 전시된다. 영상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학교 전반을 소개하고, 학창시절 추억을 재현하는 앨범의 디지털화 작업도 병행하며, 수시로 업데이트해 전시물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기숙사 1층에 들어설 ‘대전고 역사관’(점선 부분) 위치. 약 45평을 전시공간으로 꾸며 올해 안에 개관할 예정이다.

‘대전고 100년사’ 상·하 두 권으로 발행

성금 기탁자·졸업생 명단도 수록… 하권은 사진집으로

“대전고 100년사는 상·하권으로 출간된다. 상권에 학교 및 동창회 관련 각종 역사를 기록하고, 하권은 사진집으로 꾸밀 예정이다. 학교 설립연도부터 최근까지 모교의 역사를 사실을 바탕으로 시대별, 분야별로 정리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되 필요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했다. 8명의 집필위원이 이미 출간된 ‘50년사’ ‘60년사’를 근간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거쳐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동문의 제보는 감사히 받아들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951년 학교 건물이 전소되며 보관 중이던 사료가 모두 불에 타 사라졌다는 것. 이 때문에 동문 개개인이 보관 중인 모교 관련 자료를 애타게 찾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개교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보았듯이 우리 동문들의 모교사랑은 누구보다도 크고 넓다. 점점 사라져가는 풍물 속에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담아 탄생할 모교 역사관에 귀중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영구보존이 가능할 뿐 아니라 추억의 공유를 통해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락처

▲총동창회 사무국 : 042-2557-

0005, daego@daego.kr

▲재경동창회 사무국 : 02-2278-

8868

“대능미술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시기획 총괄 서양화가 정장직(50회) 동문



대능미술전 준비 책임을 맡은 정장직 동문

리는 미술반 출신 동문 화가들의 전시회만큼은 꼭 성공시키고 싶단다.

-전업 화가인데 그림은 언제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줄곧 미술반이었어요. 일찍부터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제 주변의 동문 화가들 대부분이 저와 미술반을 함께한 친구들이에요.

-모교 출신 유명 화가들이 많죠?

“제가 알기로 전국 고등학교 중 화가로 현역 예술원 회원 3명이 계신 유일한 학교일 거예요. 민경갑(32회) 선배님과 유희영(37회) 선배님, 이종상(38회) 선배님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가이시죠. 민 선배님은 현재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시고요, 재불 신부화가로 유명한 김인중(38회) 선배님도 계시고, 작고한 하동철(39회) 선배님도 당대의 화가이셨죠. 100주년 기념조형물을 제작한 임동락(51회) 동아대 교수도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조각가예요. 이 분들 외에도 많은 동문들이 대학 교수이거나 현역 작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전시회 준비기간이 짧아 예술원 회원인 세 분 선배들은 모시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 점이 참 안타까워요. 잘 아시다시피 100주년 기념행사 자체가 준비기간이 짧았잖아요. 선후배 동문들의 요청이 많았지만 동창회 측에 전시회 개최를 타진해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행히 신현일 회장님의 배려와 100주년기념사업회 임원들이 이해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전시회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품 위주로 할 생각이에요. 우선 장소부터 물색하고, 계획을 잘 세워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동안 동문 출신 화가들이 많은 데도 함께 모여 전시회를 열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어요. 아직 합의된 건 아니지만 이번 전시회에 출품한 작품을 현장에서 판매해 수익을 모교와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면 일거양득이 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전시회는 언제쯤 열 생각인지.

“대전고등학교 역사관이 올해 안에 개관하는데 빠르면 12월 초에는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그 때쯤이 적당할 것 같아요. 또 가능하면 동문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 중입니다.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대미를 장식하는데 ‘대능미술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 동문은 시간이 촉박해 참여하지 못하는 선배 화가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전시회 명칭을 ‘대전고 100주년 동문 미술전’이 아닌 ‘대전고 100주년기념 대능미술전’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명칭이야 어떻든 실력 있는 동문 화가들의 저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멋진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

100년의 꿈, 100년의 도전

-대전고등학교 100주년기념식에 붙여-

글·그림 이경학(57회)

2017년 5월 20일

거침없는 5월의 햇살이

지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내려쬐 곳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대흥동의 오직 한 곳

명문 대전고등학교 교정이었다

그 햇살을 자금심의 이마로 받아내는

청년, 청년, 청년… 백발성성 노년의 동문까지

모두들 교복 입던 소년이 되었다

수천의 싱그런 소년들과 경쟁하듯

신록에서 진초록으로, 나무들은 부지런히

왕성한 광합성을 하였으며

현질민트한 소년들에게 흠뻑 반해서

일찍 피어난 학교 담장의 넝쿨장미들은

다투어 붉디붉은 유혹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열렬한 환호 속에 마침내 그 모습 드러낸

100주년기념조형물의 눈부신 자태에

5월 햇살도 한 순간 움찔했다

현결찬 시가 퍼레이드로 우리가 곧

대전의 역사요, 자부심임을 천명하고

체육관을 가득 메운 박수와 함성

그것은 100년 세월, 수만 명의 소년들이 꾸었던

꿈이 분출하는 용암같은 에너지였다

100년의 반석 위에 우뚝 섰으니

그 무엇이 두려우랴

100년의 뿌리가 지탱하니

그 무엇에 흔들리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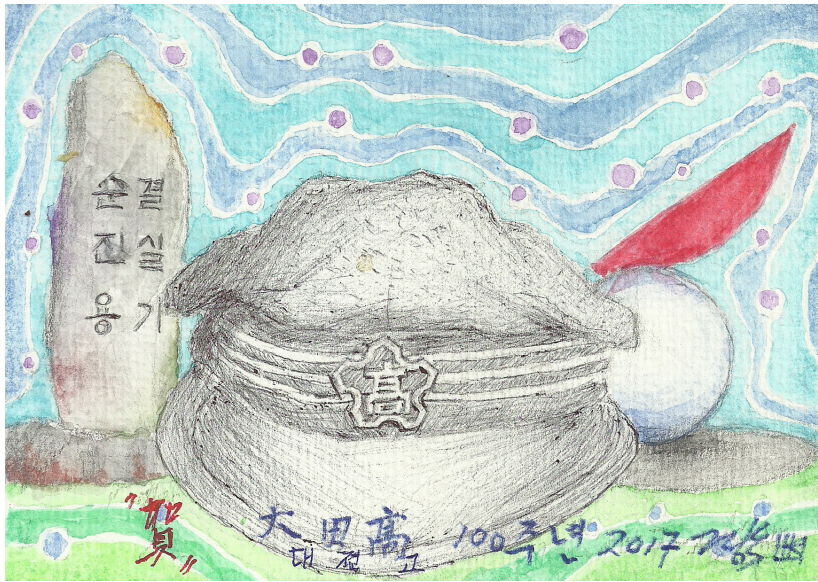
그러므로 주저함 없노라

새로이 시작되는 100년의 도전에…

도전하는 그대는 영원한 젊음이다

대전고, 그 이름에 영광 있으라

대능인, 그 이름에 축복 있으라



아래 글은 이경학(57회) 동문이 총동창회에 보내 온 메일 내용의 일부이다. 이 동문의 현재 처지와 함께 100주년 기념식에서 느낀 감회와 심경이 잘 담겨 있어 원문 그대로 실는다. <편집자 주>

<전략> 100주년기념식에 참석해서 진종일 벅찬 감회와 감동을 맞은 후 집에 돌아와… 하루 앓고, 하루 시 쓰고, 한 열흘 그림 그리고… 詩는 쉽게 나왔는데, 그림은 다리의 통증 땀시 몸이 비틀려서 자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일년 넘도록 못 그리다가 요번엔 꼭 그려야지 했지만, 그새 손이 녹슬어서 영 애먹었네그랴. 몇 차례 실패하고, 요번 것도 성에 안 차지만 더 해볼 체력이 안 되서리그냥… 그 잘난 거 하나 그리는데 열흘이라니 이겨야 원… <후략>



화가·시인 이경학은…

이경학 동문은 1957년 대전에서 태어났다. 홍익대 미대 서양화와 재학 중 독일로 유학가 1987년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했다. 스물 일곱 되던 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뇌혈관 이상과 척수병변으로 머리와 오른손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마비됐다. 본래 왼손잡이 화가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연습한 끝에 오른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힘겨운 싸움을 마주하고 있다.

MC 박찬규(75회) 동문 ‘깜짝스타’ 됐네~

연예인이 드문 동문사회에 깜짝 스타가 등장했다.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1부 사회를 맡은 박찬규(75회·사진 오른쪽) 동문이 바로 그다. 박 동문은 이날 대전MBC 리포터와 각종 행사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참석한 동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국 규모의 대형 행사를 치른 경험이 많은 기획회사 시엔피트 러스트의 정병우 대표(전 육군군악대장)도 목소리 톤이나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 솜씨가 대단하다며 호평했다.

박 동문은 지난해 총동창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2부 사회를 맡아 잠시 솜씨를 선보였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웠는데 이번엔 역사적인 행사에서 진행을 맡아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모교 100주년 기념식 사회를 계기로 동창회는 물론 동문들의 요구가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고 했다.

“끌어주는 선배”, “밀어주는 후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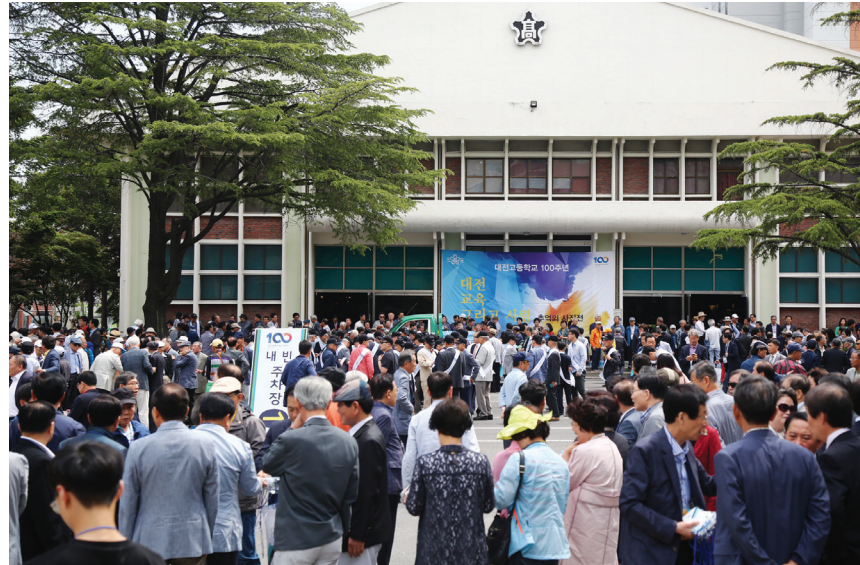
전통을 이어가기는 데 박 동문이 허리 역할을 해준다면 좋을 것 같다. 박 동

문과 함께하고 싶은 동문 단체는 총동창회 사무국에 연락해주기 바란다.





내 명찰 어디 있소?



아침 일찍부터 모교를 찾은 동문과 가족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기념조형물



처음 공개된 100주년 축하 '백년금화'



신현일 회장이 역사적인 100주년 기념식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한모동산이 바뀌었어요!... 100주년 기념식수



어디 사진좀 볼까...



해군 군악대, 의장대를 앞세우고 시가 행진



희망의 새싹들이 나가신대!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3·8민주동우회 회원들



함께 파이팅을 외치는 내빈들



자매학교인 일본 구마모토고등학교 동창회 대표(왼쪽)의 기념 선물



선후배가 한마음으로... 대능코러스 공연



대회 개막을 알리는 우렁찬 대북 소리



가수 정수라 씨의 축하공연



걸그룹 구구단의 신나는 율동

백발 동문과 낙우송의 해후

글_ 최돈일(교사)



2016년, 대전고로 발령을 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을 잊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유가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는 학교 건물이나 당장이라도 캐치볼을 하고 싶을 만큼 잘 정비된 야구장 때문만은 아니었다. 내 시선을 오래 머물도록 한 풍경은 교문에 들어서자마자 우뚝 서 있는, 밑동이 아주 튼실한 교목이었다. 수많은 계절들을 묵묵히 견뎌온 그 낙우송이 웬지 나를 반겨주는 듯했다. 그리고 그 교목 옆에 묵묵히 놓여 있던 교훈비도 내 눈길을 오래도록 이끌었다. 순결! 진실! 용기!, ‘교훈의 첫 번째 가치를 ‘순결’로 정한 그 유래와 뜻이 무엇일까’하는 물음이 내 안에 일었다.

하지만 저 물음에 대한 내 나름의 답은 새 학교에 적응하는 바쁘고 정신없는 생활에 매몰되어 한동안 잊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5월 20일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겪으며 어렴풋이나마 답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0주년 기념식에 학생들과 함께 주차 안내 및 관리를 맡게 된 나는 자연스레 교문에서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와주신 많은 본

교 동문님들을 뵈 수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시며 환히 웃으시던 반가운 표정들 속에서 서울에서 본교로 오는 버스를 타시려고 이른 새벽부터 집을 나서며 느끼셨을 긴 세월의 설렘도 함께 전해졌다. 말끔하게 100주년 기념 티셔츠를 입고 밝게 웃으며 선배님들을 맞이하던 학생들, 그리고 그 후배들을 따뜻한 손길로 쓰다듬어주시던 동문님들의 한없이 넓고 부드러운 마음밭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동문님은 언뜻 보기에도 연세가 정말 많아 보이시는 분이였다. 허리는 더 이상 구부러질 수 없을 만큼 구부러지셨고, 머리에는 하얀 세월의 함박눈이 담뿍 내려앉은 분이였다. 불편하신 몸으로 힘겹게 차에서 내리시며 그 동문님이 처음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바라본 풍경은 교문에 우뚝 서 있던 낙우송이었다. 아주 천천히 낙우송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시며 무언가를 되뇌이시던 그 동문님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 깊고 맑던 눈을 보며 나는 당신이 다니셨을 때와는 너무 달라진 어색한 학교 풍경에 다소 낯설어하시던 동문님을 진심으로 반겨준 사람들 속에서 낙

우송도 분명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다랐다. 묵묵히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를 굳게 지켜 온 낙우송은 많은 말들이 아닌 푸른 눈길로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그 동문님을 가만히 맞아주는 듯했다. 그 푸른 눈빛은 마치 백발의 동문님에게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이죠? 반가워요.”, “그동안 참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고생 참 많았어요”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이내 동문님이 다시 학교에 찾아오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나는 동문님에게 다가가 사진을 찍어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래 줄래요? 정말 고마워요”라는 말 끝에 웬지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다. 환하게 웃으시던 그 동문님의 선한 눈빛은 사진 속 만이 아닌 낙우송의 푸른 세월 속에도 고이 간직될 것 같다. 사람과 세상에 대한 맑고 순한 결기, 그것을 지켜내기가 갈수록 더 어려워진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낙우송과 그 낙우송이 자리한 대전고가 지난 100년의 세월 동안 지켜온 푸른 결기를 백발 동문님의 선한 눈빛에서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푸르고 선한 결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전해줘야겠다는 푸른 다짐도 할 수 있었다.



적에 비해 장소 등의 협소함이 문제였겠지만 시민들에게는 너무 폐쇄적이고 대전고등학교 동문들에게만 열려 있는 행사였던 것 같아 아쉬웠다. 다음에 이와 같은 행사를 진행할 때는 시민들도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전고등학교의 성대한 행사에 재학생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 나가는 세대로서 애교심을 가지고 훌륭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깨달음과 각오의 시간이었다.

이드를 하며 이동했다. 많은 언론사에서 나와 퍼레이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고, 퍼레이드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시민들도 지나가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며 환호해주셨다.

처음 퍼레이드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막상 행사 당일이 되어 참여해보니 창피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이러한 규모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학교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이 들었다. 평소 대전고등학교에 대해 주변 시민들의 인식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행사가 끝난 후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 대전 시민들이 ‘멋있다’, ‘역시 대전고등학교다’ 등의 부러움과 칭찬 섞인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것이 정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찰의 협조로 교통을 통제하고 퍼레이드를 할 수 있는 학교는 대전고등학교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충무체육관으로 이동을 하고

난 뒤 본격적으로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가 시작됐다. 사전 축하공연부터 본행사, 축하공연까지 짜임새 있게 행사가 기획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신 모습을 보고 재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대전고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 또, 내가 평소 존경하던 정치인인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가 축하 영상을 보내온 것을 보고 행사의 규모와 섭외력이 대단함을 새삼 느꼈다. 100주년을 축하하는 레이저쇼 공연부터 교장선생님이 100주년을 맞이하며 제시하신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이라는 (Let's lead the world) 비전까지 모두 하나같이 기억에 남았고, 대전고의 역사와 전통을 대전 시민들에게 보여준 뜻 깊은 행사였다.

행사에 대해 재학생으로서 대체적으로 매우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꼈다. 다만 대전고등학교의 위상을 대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행사의 목

100주년 기념행사 참가 소감문

글_ 문희준(2학년 5반 학생)

2017년 5월 20일, 우리 학교에서 역사적인 개교 100주년을 맞아 유례없는 성대한 규모의 개교 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재학생으로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었다. 대전고등학교의 역사와 그 전통에서 나오는 위대함을 대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행사였고, 동시에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며 앞으로 대전고등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행사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교를 거쳐가신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면서 재학생과 졸업생이 하나될 수 있는 단결과 화합의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전 기념조형물 제막식 및 축하 기념식을 끝내고 점심 후에 충무체육관으로 해군군악대, 의장대와 함께 태극기, 교기, 충동창회기를 앞세우고 퍼레

“장학금은 동문의 자부심이죠”

1대1 결연장학금 15년 개근 이상량(46회) 동문

“후배들 장학금 지원은 그냥 모교 사랑의 발로예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모교 졸업생의 대학 입시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장학금 지급 방식에 회의를 품는 여론이 있다는 말에 이상량(46회) 동문은 정색을 했다.

이 동문은 2003년 재경총동창회의 1대1 결연장학금이 출범한 이래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장학금을 기탁한 인물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결연장학으로 인연을 맺은 후배들의 멘토가 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을 불러 술잔을 기울이며 진로상담을 해주는 등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

다. 외국어대 독문과를 나온 이 동문은 LG그룹 임원을 거쳐 필립스메디컬 한국본부장을 지낸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저는 주로 전문경영인으로 일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어요. 한창 때 1대1 결연장학금 취지에 공감해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처지예요.”

이 동문은 기부행위는 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꾸준히 하게 되지만, 한 번 끊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다며 계속 동기부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나이 차이를 떠나 후배들과 어울



릴 수 있는 건 동문이라는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대고를 나왔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문의 직업은 몰라도 ‘이상량’이라는 이름 석자를 기억하는 동문들이 많을 것이다. 크고작은 동창회 행사 때마다 협찬자 명단에 빠졌없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동문은 오래 전 서울을 떠나 현재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다. 낙향하자마자 특유의 모교사랑 정신과 친화력으로 아산동문회를 활성화해 지금은 매달 첫 번째 주 목요일에 만나 회포를 푼다고 한다. 이 동문은 모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에서 남다른 모교사랑과 후배사랑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재경 70~80회 모임 ‘칠능회’ 출범

드디어 칠능회(회장 신항묵·70회)가 탄생했다. 칠능회는 70회부터 80회까지 재경 동문 모임이다. 이미 재경총동창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오능회, 육능회에 이어 세 번째 맞는 경사다.

지난 6월 1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편 서울마리나요트클럽 선상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동문들의 기대를 반영하듯 130여 명이 장내를 꽉 메웠다. 신현일(48회) 총동창회장, 이흥구(55회) 모교 교장을 비롯해 국회에서 박병석(49회) 의원, 정용기(61회) 의원, 김용태(66회)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했고, 김기남(52회) 오능회 회장, 김갑환(62회) 육능회 회장 등 오·육능회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대전에서도 이동혁(58회) 총동창회 사무국장, 지동선(63회) 모교 행정실장과 김광식(60회) 젊



은대교회 회장, 이재영(67회) 총무가 참석해 칠능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칠능회 출범을 격려하기 위한 성금도 답지했다. 이날 전달된 것만도 ▲재경총동창회 100만원 ▲신현일 총동창회장 금일봉 ▲육능회 500만원 ▲서용주 육능회 교문(전 오능회 회장) 200만원 ▲재경 70회 동문회(회장 김규형) 1,000만원 등이다.

모교 능화반 학생들이 서울대 방문

이흥구(55회) 모교 교장의 인솔로 지난 5월 26일 능화반 학생과 지도교사 등 50여 명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다. 서울대 재학 동문들의 안내로 캠퍼스를 견학한 학생들은 동문 교수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신현일 총동창회장과 서울대 총장, 교육부장관을 지낸 조완구(26회) 재경총동창회 상임교문, 서울대 출신으로 기상청장을 지낸 조석준(51회) 부회장도 참석

해 후배들을 격려했다.

서울대에서도 재직 동문회장인 양현권(51회) 교수와 총무인 백명기(58회) 교수 등 10여 명의 교수와 재학생 10여 명이 참석했다.

신현일 회장은 바쁜 중에도 견학 현장을 직접 찾아 점심식사비를 부담하며 재학생 후배들을 환대했다. 서울대 방문을 마친 학생들은 중앙국립박물관을 둘러본 뒤 귀교했다.



칠능회 창립총회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사진은 70회 동문회 김규형(오른쪽) 회장이 신항묵 칠능회 회장에게 격려금 1000만원을 기탁하는 모습.

이날 창립총회를 보고 감동받았다는 동문들이 많았다. 오프닝을 장식한 영상편지부터 예상외로 짧았다. 동창회를 잘 이끌어준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후배들의 나침반이 되겠다는 내 용이 큰 울림을 주었다.

연성훈(70회) 동문의 재치 있는 사회

로 장장 4시간에 걸친 행사가 끝난 뒤에도 열기가 계속됐다. 칠능회의 밝은 앞날을 보는 것 같았다.

이날 행사가 열린 서울마리나요트클럽은 변호사이기도 한 신항묵 칠능회 회장이 CEO로 있는 한강의 대표적 수상 랜드마크이다.



성금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위 : 만원)

단체명	금액	내용
100주년골프참석자	153	100주년
36회동창회	96	일백백
41회동창회	65	100주년
44회동창회	820	일백백
46회동창회	135	일백백
48회동창회	1,000	100주년
58회동창회	1,080	일백백
60회동창회	500	일백백
건능회	100	100주년
내집식당	10	100주년
뉴욕지구	3,354,638원	100주년
능역회	100	100주년
대고의사회	1,000	100주년
대고치과의사회	100	100주년
대능산악회	100	100주년
대사모	300	100주년
대신회	100	100주년
대진고당구동호회	100	100주년
대전고FC	100	100주년
삼교회	100	100주년
서산지회	30	100주년
서천군동문회	50	100주년
세종지회	50	100주년
옥천군동문회	100	100주년
재경30회동창회	14.7	일백백
재경언론인회	200	100주년
재경오농회	100	100주년
재경육농회	100	100주년
젊은대교회	100	100주년
청주지회	100	100주년



가수	이름	금액	내용
24	심은택	30	100주년
24	이근영	267	일백백
25	이만성	100	일백백
28	송갑호	100	100주년
29	황국연	100	100주년
30	금기	50	100주년
30	김시중	100	100주년
31	김상만	111.9	100주년
31	성백전	100	100주년
31	송찬호	42.3	일백백
31	신국범	50	100주년
31	이인구	10,000	100주년
31	조희재	124.5	일백백
31	한효동	100	100주년
31	황일선	100	100주년
32	김석만	100	100주년
32	나용배	100	100주년
32	장병덕	100	100주년
32	전관상	20	100주년
33	노세우	30	100주년
33	류지문	30	100주년
33	류지문	20	일백백
33	박종운	1,000	100주년
34	강현수	5	100주년
34	김도원	100	100주년
34	김용환	50	100주년
34	김희성	10	100주년
34	송자	100	100주년
34	심상기	1,000	100주년
34	전홍섭	300	100주년
34	최기준	100	100주년
34	한만우	100	100주년
35	권순원	5	100주년
35	김철중	10	100주년
35	김대중	10	100주년
35	김철중	5	100주년
35	박찬형	30	100주년
35	백동현	5	100주년
35	선국찬	10	100주년
35	이준선	100	100주년
35	오재호	10	100주년
35	이동호	100	100주년
35	이우식	10	100주년
35	정재환	10	100주년
35	최병문	10	100주년
36	강인소	14.7	일백백
36	고만수	15	100주년
36	권동원	100	100주년
36	권동원	30	100주년
36	금채	50	100주년
36	김관식	27.6	일백백

가수	이름	금액	내용
36	김동훈	5	100주년
36	김병익	100	100주년
36	박성훈	300	100주년
36	박재형	25	100주년
36	이계상	52.8	일백백
36	이광수	44.4	일백백
36	이항구	5	100주년
36	최우환	100	100주년
36	최창길	10.2	일백백
36	황성준	50	100주년
36	황선준	10	100주년
37	김태용	15	100주년
37	김호	50	100주년
37	김중두	100	100주년
37	박성두	63.9	일백백
37	박신	100	100주년
37	박종완	10	100주년
37	서원식	30	100주년
37	송창성	30	100주년
37	신현성	100	100주년
37	유희영	100	100주년
37	윤영덕	300	100주년
37	이경상	10	100주년
37	이규성	100	100주년
37	이달신	10	100주년
37	이용건	100	100주년
37	이원배	56	100주년
37	임장순	10	100주년
37	정동수	30	100주년
37	정순석	100	100주년
38	강건준	5	100주년
38	김문서	10	100주년
38	김병준	5	100주년
38	강정길	5	100주년
38	김현규	5	100주년
38	김기준	50	100주년
38	김광희	5	100주년
38	김근식	5	100주년
38	김기동	5	100주년
38	김남식	5	100주년
38	김남수	20	100주년
38	김소일	100	100주년
38	김승수	5	100주년
38	김영복	100	100주년
38	김정배	10	100주년
38	김인보	100	100주년
38	김지호	5	100주년
38	김철호	5	100주년
38	남광원	5	100주년
38	남정행	5	100주년
38	류구형	5	100주년

가수	이름	금액	내용
38	류성희	10	100주년
38	문종정	5	100주년
38	박병일	10	100주년
38	박성록	5	100주년
38	박석준	5	100주년
38	박선근	5	100주년
38	박경석	5	100주년
38	박인우	5	100주년
38	박종수	50	100주년
38	박찬현	20	100주년
38	배수남	5	100주년
38	배정설	5	100주년
38	배정설	7.2	일백백
38	서기석	5	100주년
38	성후용	5	100주년
38	송길영	5	100주년
38	송상호	10	100주년
38	송창수	5	100주년
38	송인섭	5	100주년
38	이문중	10	100주년
38	신석정	5	100주년
38	신순철	5	100주년
38	신순철	5	100주년
38	신우현	200	100주년
38	신대평	100	100주년
38	안무승	5	100주년
38	여정현	5	100주년
38	원화목	5	100주년
38	유운장	10	100주년
38	유인의	10	100주년
38	유정봉	5	100주년
38	유천기	5	100주년
38	윤형식	50	100주년
38	윤석중	5	100주년
38	윤석중	29.7	일백백
38	윤창로	10	100주년
38	이계웅	5	100주년
38	이두주	10	100주년
38	이석규	5	100주년
38	이영우	5	100주년
38	이광관	10	100주년
38	이민보	5	100주년
38	이종상	5	100주년
38	이종구	20	100주년
38	이희원	10	100주년
38	전성환	5	100주년
38	정광로	5	100주년

가수	기별분담금	기별납부액	개인후원금	총납부금	인원수
61	2,000	2,000	20,161.1	22,161.3	7
62	2,000	2,000	858.4	2,858.6	46
63	2,000	2,000	318.7	2,318.9	12
64	2,000	1,000	778.6	1,778.7	32
65	1,000	500	181.3	681.35	11
66	1,000	1,000	466	1,466.1	18
67	1,000	1,000	295.3	1,295.4	12
68	1,000	1,000	514.3	1,514.4	21
69	1,000	1,000	111.6	1,111.7	8
70	1,000	1,000	53.1	1,053.2	5
71	500	500	70	570.05	5
72	500	500	325.5	825.55	40
73	500	500	346.3	846.35	52
74	500	500	10	510.05	2
75	500	200	150.6	350.62	25
76	-	-	32.9	32.9	4
77	-	-	32.4	32.4	4
78	-	-	12.1	12.1	3
79	-	-	80.2	80.2	5
80	-	-	42.3	42.3	5
81	-	-	5	5	1
82	-	-	65.7	65.7	1
83	-	-	-	-	0
84	-	-	30	30	4
85	-	-	15.9	15.9	2
86	-	-	10	10	2
87	-	-	5	5	1
88	-	-	115	115	4
89	-	-	5	5	1
90	-	-	16.9	16.9	3
91	-	-	15	15	3
92	-	-	10	10	2
93	-	-	10	10	2
94	-	-	10	10	2
95	-	-	30	30	6
96	-	-	40	40	8
계	53,000	49,800	148,637.6	198,442.58	1,498

가수	이름	금액	내용
38	정근찬	5	100주년
38	정연소	5	100주년
38	정일용	5	100주년
38	정진철	5	100주년
38	조병직	10	100주년
38	조봉연	47.7	일백백
38	최경석	5	100주년
38	최인수	5	100주년
38	최인수	7.6	일백백
38	최준영	10	100주년
38	최태호	5	100주년
38	홍갑수	5	100주년
39	남용래	25	100주년
39	류성홍	17.4	일백백
39	박해국	39	일백백
39	서정선	10	100주년
39	송창섭	20	100주년
39	송태호	10	100주년
39	유성홍	36	일백백
39	이문중	10	100주년
39	이병은	5	100주년
39	이승진	10	100주년
39	이영웅	49.2	일백백
39	이정배	30	100주년
39	이정배	100	100주년
39	임성수	5.4	100주년
39	전승구	26.7	일백백
39	정성창	10	100주년
39	조창호	10	100주년
39	하민환	80.1	일백백
39	황동서	14.1	일백백
39	황순호	100	100주년
40	김무한	20	100주년
40	김민영	20	100주년
40	김민철	200	100주년
40	김선구	10	100주년
40	김영광	10	100주년
40	김용태	10	100주년
40	박용철	1,000	100주년
40	배양일	10	100주년
40	송재민	20	100주년
40	송천웅	20	100주년
40	심재철	10	100주년
40	우소행	5	100주년
40	유재소	30	100주년
40	윤대영	5	100주년
40	윤호일	1,000	100주년
40	이강호	10	100주년
40	이성수	10	100주년
40	이세복	10	100주년
40	이정지	100	100주년

가수	이름	금액	내용
40	이호성	100	100주년
40	임철중	50	100주년
40	장남영	20	100주년
40	장상욱	30	100주년
40	이정민	300	100주년
40	황인서	10	100주년
41	김각영	300	100주년
41	김덕희	10	100주년
41	김진혁	30	100주년
41	김태일	10	100주년
41	김태경	5	100주년
41	나이수	10	100주년
41	명간식	30	100주년
41	민동일	100	100주년
41	박성일	5	100주년
41	박인규	78.3	일백백
41	송광호	30	100주년
41	송영호	10	100주년
41	이인호	100	100주년
41	이만철	10	100주년
41	전수병	30	100주년
41	정준진	78.3	일백백
41	조영민	10	100주년
41	조규희	10	100주년
41	최성운	30	100주년
41	조신영	5	100주년
41	허성수	10	100주년
42	강윤중	27.6	일백백
42	강중구	26.7	일백백
42	고행일	30	100주년
42	곽중철	12.6	일백백
42	구자윤	19.8	일백백
42	권호준	27.6	일백백
42	김경기	27	일백백
42	김광웅	3.9	일백백
42	김민식	9.9	일백백
42	김재중	77.4	일백백
42	김시조	20.7	일백백
42	김용중	28.2	일백백
42	김유명	64.8	일백백
42	김정희	22.8	일백백
42	김조식	83.7	일백백
42	김창수	27	일백백
42	김학삼	27.9	일백백
42	김한태	27.6	일백백
42	김현중	16.1	일백백
42	김홍기	23.1	일백백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전과 응전 자랑스러운 100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대전고등학교의 미래는 대능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끌어주는 선배, 밀어주는 후배... 대능인이라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